

한국 사회의 지역화와 지역언론 연구의 성찰과 과제*

김영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론

지난 1980년대 중반 ‘지방화’ 또는 ‘지방시대’라는 다분히 정치 수사적 용어가 첫 선을 보인 이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지역화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일종의 구호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지방화’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주로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져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대한 들뜬 기대를 낳게 만들었고, 곧 실시될 것 같던 지방자치제는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1991년이 되어서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출범하여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도 지역 고유의 개발전략과 독자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기

* 이 논문은 '98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언론학 연구의 새로운 과제” 중의 소주제로 발표하였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1998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시작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과거 중앙집권적 시대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기대일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그로 인한 변화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적지 아니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집권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갈등적 요소나 모든 결정을 중앙에 의존하는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역화로 인한 외형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언론계 만큼 팔목할 변화를 이룬 분야도 없을 것이다.

1987년까지 전국적으로 10개에 불과하던 지역일간지는 1도 1사 원칙이 무너지면서 1988년 이후 각 지역별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와 1996년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지역일간지는 64개에 이르며,¹⁾ 이와 함께 1988년경부터 처음 등장한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지역신문과 생활정보지 등만도 무려 5백여 개에 달한다.²⁾

한편 지역방송은 기존 KBS, MBC 양대 방송의 독점체제가 1995년 1차 지역민방의 개국으로 무너져 현재는 지난 1997년에 개국한 2차 지역민방까지 합하여 전국 8개 지역에서 지역민방이 방송중이며, 뉴미디어인 케이블TV 역시 1995년 3월 전국 53개 지역에서 지역유선 방송국(SO)이 출범한 이래 지난해에 허가된 24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77개 지역에서 케이블TV가 방송중이거나 곧 방송될 예정으로 있다.

1) 김남석(1997), 「지역신문의 시장 조건과 발전 전략」, 김세철 외, 『지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59쪽.

2) 김영호, 「지방화 시대의 주간지역신문」, 위의 책, 198쪽.

이러한 변화들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왔던 기존의 지역언론매체들에게 있어서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나, 지역주민들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하겠으나 매체의 양적 증가가 질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미 수년 전부터 드러난 현상이지만 최근의 경제난국으로 인해 언론사 전반에 불어닥친 경영적 측면의 어려움이 지역언론에게 있어서는 거의 치명적이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형적·양적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화와 지역언론을 포함하는 언론의 함수관계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언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앞으로 지역언론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지역화의 의미

‘지방화 시대’라는 화두가 1980년대 중반 갑작스럽게 대두되게 된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지역간의 극심한 불균형적 상황으로 인해 계층간의 갈등 못지않게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잘 알다시피 과거 30여 년에 걸친 개발독재의 결과 효율성 위주의 국가정책에 의해 지역의 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역간의 불균

형과 도·농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지역간의 불균형적 상황은 저발전, 소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불만으로 연결되어 민주화에 대한 잠복된 열망과 결합되어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감정이라는 좀처럼 치유하기 어려운 고질병을 낳게 만들어 그 폐해는 매년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지방화 시대'라는 명제는 각 지역이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스스로의 발전전략에 따라 저발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게 하였던 것이다.

즉 '지방화 시대'만 도래하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지역화의 첫 관문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라는 명제가 대두된지 십수 년, 가시화된 제도로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좁혀지고 지역간의 불균형적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4년 당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의 44.5%, 산업체 종사자의 54.5%, 자동차의 48.9%가 몰려 있다. 또한 사업체 14만 7,915개 가운데 37.8%인 5만 5,905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사 38.6%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예금의 52.2%, 대출의 50.7%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동아일보》 1994. 9. 27, 10면 참조).

한편 전국 제조업체 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8%에서 1985년에 54%, 1993년에는 56%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01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48%인 2천 250만명에 달해 분당과 같은 규모의 신도시 7개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의 자료는 밝히고 있다(《한국일보》 1996. 5. 16, 8면 참조).

한편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지역의 정보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 지역들이 지역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제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 현상에 못지 않게 정보화에 있어서의 지역편중도 극심함을 드러내는 통계자료를 볼 때 지역화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지역별 정보화 수준을 가름하는 통신인프라와 이용 정도, 지원지표 등 세 가지 지수를 종합하면 서울의 정보화가 전 분야에서 가장 높고 대구·경북,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전·충남, 충북, 제주, 광주·전남, 강원, 전북 순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7월 현재 1백명 당 전화가입자 수는 서울이 60.2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광주·전남은 43.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서울은 16.6명으로 전국평균 10명을 훨씬 상회한 반면 전북은 7.4명, 인천·경기는 6.6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제전화의 이용건수는 서울은 1년 평균 3.65회인데 비해 광주·전남은 0.4회로 무려 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화 확산을 위한 지원지표, 즉 인구 1명당 정보통신사업체 시설투자액 및 연구개발비, 1백명당 정보통신 서비스관련 종사자수, 정보통신관련 연구원수 등을 종합한 지원지표에 있어서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제주, 전북,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1997. 10. 31, 36면 참조).

이상에서 인용한 1994년, 1996년 및 1997년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볼 때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가 갈수록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산업화 시대에서 벌어진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나 지역간의 불균형적 상황이 정보화 시대에서조차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인데, 즉 정보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지표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물론,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1997년도의 통계자료를 볼 때 지역화는 결코 구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지역화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주의를 토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을 감안한 발전전략의 수립,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의사 결정과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를 지역 스스로가 져야한다는 점에서나 지역간의 경쟁을 통한 불균형의 해소와 국가적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하였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정보화와 지역화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동안 지방과 지역이라는 단어

는 별다른 개념상의 구분 없이 혼용되어 왔으나 차제에 이들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지방’과 ‘지역’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종 지역언론매체들을 지칭하는 적당한 명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전적 어의에 따르면(이용백 편, 『국어대사전』), ‘지방’은 “① 어느 한 방면의 땅, 행정 구획이나 다른 어떤 표징으로 나누어진 한 방면의 땅, 고장; locality, ② 서울 밖의 땅인 시골, 고장; province, 상대어는 중앙”이라고 되어 있으며 한편 ‘지역’은 “일정한 땅의 구역, 구획된 토지, 땅의 경계, 또는 그 안의 땅; an area”라고 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지방은 전체속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와 중앙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은 전체속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할 때의 지방은 전국이 아닌 부분으로서의 지방, 즉 수도 서울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상의 구분으로서의 지방이며, 반면에 ‘지방대학’할 때의 지방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학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지방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 즉 여기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단지 지리상의 위치로서만 지방을 의미하기보다는 ‘열등함’, ‘촌스러움’, ‘변두리적’ 등의 내연적 의미를 더 강하게 풍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방언론 또는 지역언론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일까?

필자의 주관적 관찰이기는 하지만 ‘지방방송’ 또는 ‘지방신문’ 등 지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이들 매체들의 낙후성, 중앙에 대한 예속성 등을 강조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것 같으며, 반면에 ‘지역신문’ 또는 ‘지역방송’처럼 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등 독자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진다.³⁾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이 지역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개념에는 이중적인 의미, 그것도 가치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의미상으로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할 경우) 지역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의상으로 서열적 관계에 있는 ‘지방법원’, ‘지방경찰청’ 등의 경우에는 지방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나, 각 지역의 독자적인 통치체제를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지역자치’라는 용어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화’ 또는 ‘지방시대’라는 용어도 각 지역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사회 또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역화’ 또는 ‘지역시대’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용어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지방화 대신 지역화로, 지역언론매체들에 대해서는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지역신문(소지역신문), 지

3)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 관찰일 뿐 이들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별다른 의미상의 구분없이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역방송, 지역케이블TV(SO) 등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지방자치제는 지역자치제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공식 용어라는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Ⅲ. 지역화와 지역언론

지역화의 성패 여부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지역의식의 함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식이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주민들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이 지역의식을 배양시키고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 매개체는 다름 아닌 지역언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지역화와 지역언론의 관계는 양자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지역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지역언론의 역할과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역으로 지역언론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식을 고취시켜 지역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이자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의 변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지역주의의 대두, 둘째 지역경제의 변화, 셋째 미디어 환경의 변화, 넷째 미디어 제작환경의 변화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앞의 두 요인은 지역언론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변화이며, 뒤

의 두 요인은 내적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중앙 집권적 정치 풍토에 익숙해져 있다보니 진정한 '지역주의'는 사라지고 '지방색'이니 '지역감정'이니 하는 부정적 지역성만이 부각되는 폐단을 지난 30여 년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으며, 새 정부출범 이후에도 지역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부작용은 많았을지라도 이렇게나마 싹튼 지역성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지역주의'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음은 역설적이거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중앙에 대한 의존형 지역성으로부터 환경보호, 지역경제의 자립, 지역 고유문화의 부활 등의 움직임을 통한 자립형 지역주의로의 변모와 함께 지역간 경쟁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변화들이 미동(微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중앙의 생산기지 역할 정도에 머물러왔던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의 개발을 통해 자립형 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공단 유치보다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월드컵 경기장 유치 등에 각 자치단체와 지역언론,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는가 하면 지역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이 '정보의 발신지'로 발돋움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치의 민주화, 언론(言路)의 개방화, 사회의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관계에서 지방분권적 관계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명제이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한 지역사회는 단순한 생활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공간, 경제공간, 문화공간으로서 독자성을 갖추고 그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언론활동에 대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언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언론은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표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최근의 경제난은 대다수 지역언론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지역방송계 일각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화라는 새로운 구도를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언론이 처해있는 실상을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앙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주민들의 신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지역일간신문들이 처해 있는 실상은 전국적으로 불과 대여섯 개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지역일간신문이라는 상품은 불량품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는 더욱 외면 당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속에서 경영수지를 맞추고 살아남자면 외부적으로는 독자 확보, 광고 확보에 무리가 따르고 내부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저임금으로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하루를 꾸려나가는 식의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지역일간신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며, 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공중 분해된 신문사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과정에서 양산된 사이버언론 및 사이버기자들 때문에 언론공해

라는 신중단어까지 나타난 것이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최근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는 지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율적인 통폐합을 권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한편 지역방송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KBS와 MBC 양대 방송의 독점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방송들은 중앙국의 중계소 역할 정도에 머물러왔으며, 이를 신문에 비유한다면 독립된 지역신문이 아니라 중앙지의 지역판에 해당되는 정도의 위상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방송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차원에서 일부 방송사의 경우 지역방송의 광역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만약 그대로 실현된다면 지역방송에 있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성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지역언론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역언론 스스로의 한계와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에 걸친 구조적 요건에 의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언론이 처한 실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당위적 필요와 척박한 현실”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역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비록 아직까지 지역화 시대라는 거창한 명제에 부합되는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역시대가 개막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일차적으로 지역분권화, 정치의 다핵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청와대나 국회, 정당 등에 쏠렸던 국민의 관심이나 언론의 초점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책 결정에의 참여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그간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 이루어지던 모든 결정과 집행이 아래로부터 위로(bottom-up) 이루어지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변화의 파장은 단지 정치권력의 변화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이미 몇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자치의 실시만으로 지역시대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역시대의 실현 여부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각 지역에 권한을 위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형성 등을 통해 어떻게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보다 큰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시대에 있어서 지역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간 또는 지역내의 여러 집단간 갈등의 조정자이자 통합자의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역언론에 위임된 것과 다름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전부터 우려되어온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같은 당 일색으로 선출되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상호견제라는 의미가 퇴색되어버리고 독주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지역언론은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한 감시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당적 견제기능까지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언론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언론 스스로가 변신을 해야 한다.

신문의 경우는 우선 경영적 측면에서 안정성과 타 매체와의 경쟁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ABC제도의 정착, 중앙일간지들의 공세 등 신문계 내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매체의 출현, 뉴미디어에 의한 시장 잠식 등의 변화에 대응하자면 경영적 측면과 함께 내용적 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건전치 못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신문들은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문들이란 결국 보다 철저히 지역주민에게 밀착하면서 지방화 시대라는 물결을 앞당길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뒤지지 않는 경영과 편집에서의 혁신을 이루는 신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방송의 경우는 그 동안 “지역방송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방송정책에 있어서나 수용자인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아왔으며, 심지어는 방송종사자들조차도 자조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활로를 찾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 2차 지역민방의 개국과 수십 개에 이르는 채널의 전국방송의 탄생을 의미하는 위성방송 개시 등의 방송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변화의 방향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방화 촉진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1995년 출범한 케이블TV는 아직까지도 인식부족, 전송망 설비의 미비, 프로그램의 부족과 케이블TV 업계 내부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및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 등으로 유료 가입율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까지 누적적자가 근 1조원대에 달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케이블TV는 지난 1997년 말까지만 해도 공지사항 외에는 뉴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법적 제약 등으로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고 미비점들이 보완되면 지역 정보화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다 더 지역언론다워지는 것이며, 그러자면 지역언론은 신문과 방송을 막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철저하게 밀착하여, 지역사회내의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국익이나 광역차원의 이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문자 그대로 지역여론의 수렴자이자, 지역발전의 견인차이며, 지역문화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의 미래는 지역언론 스스로가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이익 대변과 같은 본연의 목적을 이탈하지 않은 채 자생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지역화에 이르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다.

IV. 지역화와 지역언론에 있어서 언론학 연구의 성찰과 과제

‘지역화’와 언론학의 연결 고리는 아무래도 지역언론 현상이라는 연구 대상을 통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언론학 연구 중 주로 지역언론 연구를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역언론 부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이 극히 미미하였던 지역언론 현상만큼이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도 매우 희박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서울지향적 사고에 따른 ‘지방=열등한 것’이라는 등식에 의해 지역언론 연구조차도 우리 학계의 관심권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이다.

그런 중에도 그간 이루어진 지역언론 연구의 긍정적 성과를 몇 가지 든다면 1970년대 초반부터 학술적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동안 연구의 양과 질에 있어서 괄목할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언론학이 초기에는 신문지 신문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저널리즘 분야와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총망라한 커뮤니케이션 과학으로 발전하였듯이 지역언론 연구도 초기에는 지역 저널리즘 분야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연구영역이 커뮤니케이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지역언론 연구의 범위로 ① 지역미디어(local media)에 대한 연구, ② 지역간 커뮤니케이션 현상(inter-local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 ③ 지역내 커뮤니케이션 현상(intra-local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⁴⁾로 분류한 바 있는데, 연구의 양적 측면에서는 지역미디어 연구가 아직 대중을 이루고 있지만 지역간 또는 지역내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는 많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라 하겠다.

특히 지방소재의 대학들에 신문방송학과를 비롯하여 언론학 유관 학과가 40여 곳에 설치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지역언론 현상에 대한 연구는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언론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 체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지역언론, 즉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등 언론 현업에 적지 않은 자극과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다. 언론학의 여러 연구분야 중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현실성과 현장성이 강한 연구라는 특성과 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대학과 언론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언론(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지역언론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지역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학협동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 지방자치제, 지역감정, 정보화 사회 등의 문제를 언론학적 입장에

4) 김병국·김영호, 「지방언론 연구의 성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언론학연구 30년: 성찰과 전망』, 1990, 71-72쪽.

서 연구함으로써 언론학 연구의 관점을 다양화시켰으며 미래지향적인 연구성과의 축적에도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언론학회 지역언론 연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그간 발표하였던 논문들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한 『지역사회와 언론』(김세철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은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지역언론 연구에서 다루어지어야 할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앞서 출판된 『지역사회와 지방언론』(이치백 편, 신이출판사, 1987)과 『현대사회와 지역언론』(김영호·강준만, 나남, 1995)은 지역언론 분야에 관한 논문이 적지 않았음에도 학술 단행본은 전무하던 시점에서 나름대로 이 분야의 연구를 체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언론 연구가 양적인 면에서는 결코 적지 않았으나 연구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다양성 결여 등, 질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주로 지역미디어 중심의 연구 경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규범적 내용을 기술적(descriptive)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당위론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면서도 결국 그게 그거라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미디어 중심적인 연구가 지역언론 연구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 연구분야로 보면 저널리즘 연구에 속하면서도 저널리즘 연구와 같이 세분화된 연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총론적 또는 개론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방송에 관한 연구 중 방법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문헌연구로 총 127편 중 77편으로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베이가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분석 연구는 1990년부터야 시작돼 총 6편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 중 다섯 편이 편성에 관한 것이고 한 편이 뉴스보도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⁵⁾

지역언론 연구의 여러 분야 중 지역방송 연구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지역언론 연구 전반으로 확대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역언론 연구 중에서도 지역방송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법론적 측면에서 지역언론 연구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날 지역언론 부재라는 극단적 현상이 제3공화국 이후 계속되어온 중앙집권화와 수 차례에 걸친 언론통폐합 등 지역언론 축소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정책적 문제보다는 단순히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미디어적 차원에서 그 낙후 원인을 찾고자 한 연구 태도 역시 안일한 접근방법이었다고 자성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언론학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부분을 구미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언론 분야의 연구는 국외의 이론이나 현상에 대한 소개가 미흡한 분야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외국의 지역언론 현상과 현황에 대한 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분야에 관련된 적절한 이론적 틀을 찾아 우리 실정에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5) 한진만, 「지역방송 연구 현황에 관한 소고」, '97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5-86쪽.

이처럼 지금까지의 지역언론 연구가 연구 내용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 학계의 연구자들 스스로가 이를 주된 전공으로 삼기보다는 부수적인 연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조차도 든다.

참고로 그간 이루어진 지역언론관련 연구들에 관한 문헌들을 정리해놓은 것들로는 김병국·김영호의 「지방언론 연구의 성찰」(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언론학 연구 30년: 성찰과 전망』, 1990) 및 정진석의 『한국 언론학 박사·석사학위 논문 총목록』(나남, 1992)이 있으며 지역방송만을 다룬 것으로는 김성호의 「한국 지역언론 관계 문헌색인(방송편: 1927-1996)」(김세철 외, 『지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및 한진만의 「지역방송 연구 현황에 관한 소고」(한국방송학회 '97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 논문) 등이 있다.⁶⁾

V. 지역언론 연구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몇 가지 관점들

학술적 틀을 갖춘 지역언론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을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본다면 20여 년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비슷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야말로 지역언론 연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 글을 통해 그간 이루어진 지역언론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대략적 경향만을 서술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연구방법상의 다양성 결여라는 문제와 함께 지역 언론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면 과제라 하겠으나 우선 지역언론 연구에 임하는 시각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바뀌어야 할 관점을 필자의 자성을 포함하여 문제제기의 형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지적할 것은 지역언론, 구체적으로는 지역언론매체를 대하는 시각을 종속적 관점에서 독립적 관점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앙에 대한 종속적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언론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보기보다는 “...을 위한 지역언론” 식으로 지역언론 그 자체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종속변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전반의 중앙집권적 구조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관점만을 고수하다보면 결론은 항상 우리 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외부책임론으로 귀착되거나, 문제는 있는데 해답은 없는 공허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가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언론 현상 자체를 너무 거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든다면 지역언론매체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중앙언론사에 비해 노동량의 강도가 어떤 수준인지, 적절한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시적 수준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연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뜻이다.

그러자면 지역언론을 우리 사회 전반의 중앙 대 지방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의 종속변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대하는 연구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지역언론 연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언론 그 자체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등 ‘무언가를 위한 지역언론’ 식의 연구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언론은 종속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취급된 연구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초기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의 태동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언론매체는 그 자체의 필요에 의해 존재해오면서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의 역할과 사명이 부여된 것이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미리 계획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지방자치제 등 지역사회 내의 제반 문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역언론매체는 그 자체로서 존립의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독립적 변인으로 놓고 그것의 존재가치를 찾고자 하는 관점으로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지역언론 연구에서 강조하는 지역언론의 ‘지역성’이라는 문제와 언론의 공적 성격 간에 초래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언론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역언론은 지역언론다워야 하며, 그것이 지역성을 최대로 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지역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상적 수준의 언급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옳은 말이며,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을 여러 글을 통해 해온

바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아비판적인 자세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성은 때로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성격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수 년 전 지역감정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에 영·호남 지역의 4개 일간지와 중앙의 1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지역감정관련 기사를 내용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지역신문일수록 이 문제를 자극적이고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어 언론의 공적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⁷⁾ 이런 경우 이를 언론인의 양식이나 윤리에만 맡길 수는 없는 문제라는 뜻이다.

이처럼 지역감정이라는 미묘한 사안 외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인접 지역간 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이나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지역이기주의 및 갈등적 조짐을 볼 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무리 지역성을 상품으로 내세우는 지역언론이라 하더라도 언론 본연의 공적 성격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의 조정자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지역성에 대한 새롭고도 구체적인 정의가 지역언론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지역언론 연구에 있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의 하나로 '활성화'에 대한 의미와 송신자와 수용자 간의 괴리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7)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필자(1991)의 「지역감정과 지방신문」(『지역감정연구』, 학민사) 및 역시 필자(1992)의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영·호남 언론인간의 상호정향(co-orientation)에 관한 연구」(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지역방송에 관한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한 연구에 의하면,⁸⁾ 25개의 주제로 분류된 178편의 연구 중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13.5%(24편)로 가장 많았다고 할 만큼 신문과 방송을 막론하고 지역언론과 관련한 연구의 주제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이 활성화 또는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들인데, 이들 중 많은 연구들이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없다 보니 어떤 것은 경영 상태의 개선율, 또 어떤 것은 질적 개선을 의미하는 등 활성화라는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이상적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이 경영 조건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으나 불행하게도 지역언론매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도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뚜렷한 연구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활성화가 의미하는 바가 지역언론매체의 경영 주체나 종사자 등 송신자 측면에서의 활성화인지 수용자를 고려한 활성화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측면에서의 활성화가 아닌 모든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란 자칫하면 어느 측면 하나조차에도 적용시킬 수 없는 공허한 방안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VI. 지역화와 언론학 연구에 대한 전망 및 제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역언론 연구는 주로 지역언론의

8) 한진만, 앞의 논문, 86-87쪽.

개념 정립 및 기능과 활성화 방안 등에 초점을 둔 규범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의 지역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지역언론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역언론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또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따라 지역언론과 지역화에 관한 연구범위나 연구관점의 다양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뉴미디어 및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라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여 종래의 지역언론 개념과 기능도 새롭게 규정되지 않으면 안될 국면에 처해 있으며, 또한 신문과 방송이라는 전통적 미디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지역단위의 정보화 척도 및 지역간의 정보격차 현상 등에 관한 연구는 지역화 실현을 위해 우리 언론학계에 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언론에 관한 연구를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한계는 지역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지역의 문제로 일반화시킬 경우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의 연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역언론의 활성화 여부는 그 지역의 인구규모와 경제력 그리고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지역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지역언론 전체를 보려 하다가

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인구규모 면에서 부산의 지역언론 상황과 제주도의 지역언론 상황이 같을 수 없으며, 지역의 독자성에 있어서 호남과 경기 지역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언론 연구는 각 지역별로 언론현상을 둘러싼 제반 조건을 고려한 학제적(學制的) 연구와 지역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례로 부산지역의 경우 신문 구독율에 있어서 중앙지 25.9%, 지역지 50.3%, 병독(並讀) 23.9%인데 반해 전북지역은 중앙지 79.0%, 지역지 5.7%, 병독 15.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한 조사결과도 있으며, 경영상태도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언론이 처해 있는 현실이 지역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이 지역언론 스스로에게 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제반 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낙후 지역의 지역언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준다는 점과 함께 각 지역의 지역화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의 활성화 여부는 지역화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활성화된 지역언론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할 때에 각 지역의 지역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역화 지수'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화 지수는 지역간의 지역화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로서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스스로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취약부분과 장려부분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등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에 앞서 시급한 것은 지역언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범언론학적 차원의 '비교 지역언론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야말로 추상적 차원의 '지역화와 지역언론의 역할'이라는 반복되는 명제를 구체화시켜 현상의 개선에 언론학 연구가 일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回 참고문헌

- 김세철 외(1997), 『지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호(1995), 「지방화 시대의 지역언론 경영과 성공사례」,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일 국제심포지움: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언론” 발표논문집.
- 김영호 외(1995),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나남.
- 임영호(1995), 「한국 지역신문 시장의 구조와 특성」, 《언론과 정보》 창간호
- 한국언론학회 편(1990), 『한국 언론학 연구 30년: 성찰과 전망』.
- 한진만(1997), 「지역방송 연구 현황에 관한 소고」, '97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동아일보》 1994년 9월 27일자, 10면.

《문화일보》 1997년 10월 31일자, 36면.

《한국일보》 1996년 5월 16일자, 8면.

* 이외에 필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각주 표기를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